

시청자 취향 따라 드라마가 변한다

편수·내용·소재 가지각색

웹드라마 등 단막극도 인기

드라마의 형태와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 4부작, 8부작, 12부작 등 편수도 다양해지고 회당 분량도 10분부터 70분까지 가지각색이다. 제작 편수가 많아지면서 소재도 넓어졌다. 플랫폼 다양화, 광고시장 변화가 시청 취향 변화와 어우러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 지상파 4부작, 8부작, 12부작 잇따라
과거에는 미니시리즈라고 하면 16부가 기본이고 많으면 20부까지의 드라마를 말했다. 회당 분량은 60~70분. 지상파 3사가 월화극, 수목극으로 편성하는 미니시리즈는 이런 규격으로 수십년간 운영됐다. 이에 맞춰 3사가 편성 전략을 짜왔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달라졌다. 4부작, 8부작, 12부작 짜리 드라마가 이어지고 있다. 지상파의 중간광고 격인 프리미엄CM(PCM)의 등장으로 회당 분량이 30~35분으로 줄어들기도 했다. 현재 방송 중인 KBS 2TV 월화극 '란제리 소녀시대'는 8부작이고, 얼마 전 끝난 MBC TV '죽어야 사는 남자'는 12부작이었다. 또 KBS 2TV는 '백희가 돌아왔다' '베이비시터' '맨몸의 소방관' 등 4부작 드라마도 편성했다.

지상파보다 편성이 자유로운 케이블채널에서는 한발 앞서 '규격'을 파괴했다. OCN에서 방송한 '나쁜 녀석들'은 11부작이었고, '애라는 로맨스'는 13부작이었다. 또 '모민의 방'은 7부작, '처용2'와 '닥터 프리스트'는 10부작, '벵파이어 탐정'은 12부작이었다. 현재 방송 중인 tvN '아르곤'도 8부작이다.

케이블에서 시작된 이러한 편성이 지상파까지 온 것은 광고시장 변화 때문이다. 과거에는 16~20부로 만들지 않으면 광고가 잘 안 붙었다. 16부보다 편수가 적은 드라마는 사실 편성이 어그리지면서 대타로 급하게 투입된 '뽕질용 드라마'인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캐스팅도 세지 않았다.

하지만 광고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플랫폼이 다양화로 광고가 분산되면서 이제는 8부작, 12부작 드라마나 16부작 드라마나 광고 수주가 어려운 것은 같은 처지다. 16부라는 규격을 지켰던 광고의 논리가 사라지면서 운용의 묘가 확대됐다.

정성호 KBS드라마센터장은 17일 "예전에는 4부작, 8부작을 기획하면 광고 문제로 부담이 됐지만 요즘에는 광고 사정이 안 좋으니 오히려 자유로운 형태도 드라마를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4부작 드라마 등을 '뽕질용'으로 투입했지만 요즘은 아니다"라며 "여전히 계절적



요인 등에 맞게 편성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소재에 맞게 분량을 조절하면서 완성도 있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 단막극 활성화...신인 작가·연출 발굴하는 장
한동안 종적을 감췄던 단막극이 다시 여기저기서 만들어지고 있다. 단막극이 사라졌던 이유는 광고가 붙지 않아 만들면 손해였기 때문이다. 그랬던 단막극이 부활하는 것은 드라마 시장 확대에 인한 경쟁이 치열해진 때문이다. 방송 시장에서도 채널이 늘어난 데다, 플랫폼 다양화로 드라마 콘텐츠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신진 작가 발굴을 위해 너도나도 뛰어들게 됐다.

KBS 2TV가 매년 '드라마 스페셜'이라는 이름으로 10여편의 단막극을 선보여왔던 데에 CJ E&M과 JTBC 등이 가세하면서 갑자기 단막극이 활성화되는 분위기다.

CJ E&M은 지난 4월 드라마, 영화 신인 작가 35명을 선발해 이들의 작품 창작과 데뷔를 지원하는 '오픈'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 130억원을 투입해 신진 작가들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선발된 드라마 작가의 작품 중 우수 대본 10편은 12월부터 tvN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KBS 2TV '드라마스페셜 2017'은 지난 3일부터 매주 일요일 밤 11시에 방송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방송된 두 편이 모두 4%대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대박'을 쳤다.

정성호 KBS드라마센터장은 "이번 작품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완성도가 높은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기존 작가와 연출이 문자 세대였다면, 신진들은 영상 세대로 완전히 문법이 달라졌다"며 "단막극을 만들지 않았다면 그들의 생각을 확인하는 게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웹드라마 붐...모바일 세대 겨냥 10~15분 분량
단막극은 여전히 '미래에 대한 투자'의 개념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제작된다면, 모바일 시대를 타고 웹드라마는 수익을 노리고 제작 붐을 이루고 있다.

플랫폼의 다양화로 더이상 편성이 어렵지 않고, 웹드라마 특성에 맞게 '가볍게' 만드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드라마 시장에 진입하는 입장에서는 웹드라마가 제작 진입 장벽이 낮고 신인 작가는 물론이고 신인 배우의 실험장으로도 적극 활용할 수 있어 여러 가지로 매력적인 콘텐츠다.



반려동물과 동거인 천만시대

'동물예능'도 진화한다

17년차 '동물농장' 소유보다 공존·교감 답아

'하하랜드'·'대화가 필요한 개냥' 등 신규 편성 눈길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그 사이 900만대로 내려앉은 서울 인구보다도 많아진 셈이다.

이러한 수요에 맞춰 '동물예능'도 진화를 꾀하고 있다.

방송 17년 차를 맞은 SBS TV 'TV 동물농장'에 이어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MBC TV '하하랜드', tvN '대화가 필요한 개냥' 등 재개발한 신생 프로그램들이 눈길을 끈다.

2001년 시작한 'TV 동물농장'은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를 보편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소유'의 뜻이 담긴 '애완동물'을 일상적으로 썼지만 'TV 동물농장'이 동물에 대한 감성적인 시선과 사연을 꾸준히 전파한 덕분에 이제는 '공존'의 뜻이 담긴 '반려동물'이 더 익숙해졌다.

이경홍 PD는 17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동물의 단순히 귀여움을 담는 게 아니라 사람과 동물, 동물과 동물 간의 '교감'을 담는 것"이라며 "위낙 PD들이 현장 경험이 많아 교감 포인트를 잘 살려낸다"고 자신했다.

'포스트 동물농장'을 꿈꾸는 신생 프로들은 차별성을 강조한다.

파일럿 방송 후 호평받아 정규 편성된 '하하랜드'의 콘셉트에 대해 이미영 PD는 "인간과 동물의 공존"이라고 설명했다. 큰 맥락에서는 'TV 동물농장'과 비슷하지만 장 애견 입양 문제, 동물병원의 24시, 노홍철과 반려당나귀 동기의 일상 등 색다른 소재들을 다루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강형욱 훈련사를 내세워 반려동물의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는 데 포인트를 맞췄다. 반려동물을 키울 때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주는 게 특징이다. 시즌2에서는 방송 시간을 20분 늘려 문제 행동을 보이는 반려동물을 심층적으로 분석, 해결책의 설득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희성 PD는 "미디어에서 동물이 다뤄

지는 방식은 아직 한계가 있어 아쉽다"며 "2년 남짓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반려동물 역시 우리처럼 사랑, 기쁨, 슬픔 등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교감한다는 것을 매년 깨닫는다. 단순히 예쁘게 잘 찍힌 화면보다는 반려견과 보호자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첫 방송한 tvN '대화가 필요한 개냥'은 스타들과 그들의 반려동물이 어떻게 교감하는지 살펴본다.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콘셉트를 내세워 그야말로 '소통'에 코드를 맞췄다.

김수현 PD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상대의 속마음이 궁금해지듯 반려동물의 마음도 궁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와 고양이의 시선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여주자는 게 기획의도다. 전문가 김수현을 통해 동물의 행동을 탐구하고 그들의 신호를 분석해서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아예 반려동물이 직접 시청하는 채널도 생겨났다. 유료 채널인 도그티비는 이스라엘에서 처음 개국했고 국내에는 2013년 들어왔다. 집에 홀로 남겨진 반려견의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를 돕는다고 한다.

이렇듯 다양한 형태의 동물 프로그램이 생겨나는 데 대해 'TV 동물농장'의 이경홍 PD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데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다양한 동물, 다양한 방식의 관찰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TV 프로그램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결여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훈장 오순판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행복한 지도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00 2017 메이저리그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살림하는 남자들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영실 (재) 50 감성툰 고집습니다 2 (재)	50 란제리 소녀시대 (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00 MBC 정오 뉴스 20 문화사색	30 제25회 임방울 국악제
1	00 넷워킹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 빛고을 행복아카데미		10 헬로킴지 이하 동물탐험대 2 55 드림 주니어 스페셜	
2	50 콘서트 필	00 영화가 좋다 (재) 5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25 텔레몬스터 (재) 30 지오메카	
3	30 공감다큐. 사람 50 팔도방송 스페셜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00 꾸러기 식사교실 30 별별머리 (재)	00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5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토크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10 KBS광주 연중특별기획 남도스페셜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 특공대 (재)	00 MBC 이브닝 뉴스 40 왕은 사랑한다 (재)	00 SBS 오 뉴스 5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이름 없는 여자 (재) 30 2TV 생생정보	10 살맛나는 세상	00 맨 인 블랙박스 25 사랑의 온도 미리보기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우기	50 내 남자의 비밀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골지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 24 55 제보자들	35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55 별별머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40 가요무대			
10	40 KBS 뉴스라인	00 란제리 소녀시대	00 왕은 사랑한다	00 사랑의 온도
11	10 특선다큐 리스타인의 요리 기행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기행 길	10 동상이몽 2 너는 내 운명 1~2부
12	10 이웃집 찰스 (재)	35 영상앨범 산	1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40 경제매거진 M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양초보 영어 05:30 세계신문 아틀라스 <커피드벤처 -커피의 나라, 콜롬비아>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김경희의 파김치 고동어찌꺼기 어묵 맛살말이)
06:0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허준선이 과학쇼 07:30 로보카 폴리 07:45 출동! 슈퍼웍스 08:00 당동명 유치원 1~2 08:30 플라워링 하트 08:45 방귀대장 뽕뽕이 09:00 몬카트 09:15 소피 루비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온다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2:45 과학 다큐 비온드 (재) 13:40 엄마를 찾자(재) 14:30 레이디 비그
15:00 우주탐험가 젯 15:15 꼬마기사 마이코 15:30 오드북, 이상한 아이들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06:00 엄마 깨우리 16:15 두다다공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16:45 당동명 유치원 1~2(재) 17:15 로보카 폴리 17:30 강철소년대 피이어로보 17:45 호기심 소녀 도트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사이언스 맥스 19:30 EBS 뉴스	19:55 다문화 고부 열전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유림 속 비밀 낙원, 불가리아 -행복의 조건 스텐란) 21:30 한국기행 <맛나다. 딱-이게 딱이라고요?> 21:50 광복절 특집 -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대혁명 - AI와 인간의 공존 가능성가 22:45 엄마를 찾자 23:35 가칠남녀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24:30 세계의 드라마 <빅토리아 2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8일 (음 7월 28일 戊申)
子	48년생 급한 마음을 조절한다면 여유로움이 완벽함을 담보 할 수 있다. 60년생 예상해왔던 바대로 진행하게 되리라. 72년생 공존공영의 기반이 성립되는 도량이다. 84년생 울고 싶는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웃고 있다. 행운의 숫자 : 31, 87	42년생 발단은 가까운 이로부터 비롯된다. 54년생 소신껏 행한다면 보람이 따른다. 66년생 상호 관련된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이다. 78년생 교착상태다. 90년생 유창한 능변에 휘둘릴 수도 있으니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56, 01
丑	49년생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국면에 임하게 되면서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다. 61년생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리라. 73년생 발걸음이 달마져 기우니 걱정부터 앞서리라. 85년생 충심이 깃들어야 감동을 줄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12, 64	43년생 비단웃고 밭길 걷는 격이다. 55년생 살마져 사람 잡는 법이다. 67년생 선수를 치지 않으면 오히려 당하게 된다. 79년생 계속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91년생 사실로 확인되었을 때는 이미 늦으니 예견한 후에 즉시 대처하라. 행운의 숫자 : 43, 76
寅	50년생 농담이 진담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을 아껴라. 62년생 순서와 방법대로 행하라. 74년생 김운이 순조로움을 부르니 저절로 흥겨운 콧노래가 나올 것이다. 86년생 주관적인 안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큰일을 그르친다. 행운의 숫자 : 94, 42	44년생 무의식적인 실수가 판국을 망칠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 56년생 활이 꺾이고 화살이 다 떨어진 이치이다. 68년생 예상대로 준비한다면 적기에 쓸 수 있다. 80년생 이익이 따를 것이니 무조건 수용하고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06, 44
卯	51년생 목표를 좀 더 높게 설정해도 무방하다. 63년생 다각적인 관점과 인식이 절실히 요청된다. 75년생 내부적인 단속과 확실한 절제가 절실한 때 이니라. 87년생 내버려두면 불신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 행운의 숫자 : 04, 74	45년생 노력하지 않는다면 밀릴 수밖에 없다. 57년생 발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이었다. 69년생 예측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예의 주시하라. 81년생 비웃을 때 새롭게 답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7, 85
辰	52년생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 64년생 사실보다 과장하여 인식하고 있느니라. 76년생 그 동안 답보의 원인으로 작용해 왔던 장애물이 사라지면서 뜻한 바를 이루리라. 88년생 부실함과 혼란이 보이는 과도기이다. 행운의 숫자 : 21, 55	46년생 일관되게 지속되어야 능력이 오르는 법이다. 58년생 힘들거나 번거롭다고 하여 보류했을 때는 무리가 따른다. 70년생 공허하여 그 어떤 실속도 없다. 82년생 수상하다면 다시 한번 확인 해보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86, 18
巳	53년생 어려움을 참고 노력하면 된다. 65년생 작은 배가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에 비유할 만하다. 77년생 이룰 수도, 저를 수도 없는 형편에서 입장이 곤란해지겠다. 89년생 일이 의외로 잘 풀리게 되는 길목이다. 행운의 숫자 : 75, 42	47년생 잘만 활용한다면 상당한 수익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다. 59년생 실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71년생 상대의 깊은 마음속을 어찌 다 알 수 있겠는가? 83년생 유독 빼어난 것이 보이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80, 71